

미국 정부 건설업 관련 주요 보도자료

※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 요약함.(24.11.01~24.11.30)

- 미국 교통부(DOT), 8개 주를 대상으로 신속한 교통 프로젝트 조달을 위한 첨단 디지털 건설기술에 1,660만 달러 지원 발표 [11/1]
 - 미국 교통부(DOT) 산하 연방도로국(FHWA)은 고급 디지털 건설관리 시스템(ADCMS)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8개 주의 프로젝트에 1,660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5년 동안 총 8,500만 달러를 제공한다고 발표함
 - 크리스틴 화이트 연방 고속도로국 국장 대행은 인력지원, 입찰 정확도 개선, 대중과의 소통 방식 개선을 위한 기술에 이르기까지 시스템을 디지털화하여 교통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있다고 언급함
 -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시간과 리소스를 절약하고 보다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임
 - 또한,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여 주 교통부가 디지털 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며, 종이 기반 시스템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조달 프로세스에 효율성을 구축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임
 - ADCMS 프로그램에 선정된 프로젝트는 애리조나 DOT의 Igniting Arizona's Digital Delivery Revolution 프로젝트(136만 달러), 메인주의 DIRIGO 2030 프로젝트(151.6만 달러), 매릴랜드주의 정밀 3D 측량 및 교통 인프라 엔지니어링(P3DSETI) 시범 프로젝트(100만 달러), 뉴햄프셔 DOT의 디지털 프로젝트(320만 달러), 뉴멕시코 DOT의 고급 디지털 건설관리 시스템 구현 계획 프로젝트(185.8만 달러), 뉴욕주 DOT의 도로 자산정보의 수명주기 관리 향상 프로젝트(340만 달러), 오하이오 DOT의 워크플로우 최적화 프로젝트(329.2만 달러), 오리건 DOT의 자산 수명주기 관리 프로젝트(102만 달러) 등임
- 미국 교통부(DOT), 허리케인 헬렌으로 인해 발생한 국립림과 국립공원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긴급 구호자금 4,300만 달러 지원 발표 [11/8]
 -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고속도로국(FHWA)은 허리케인 헬렌으로 인해 파손된 인프라를 신속히 복구하고 재개하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1억 4,400만 달러를 지원한데 이어 미국 산림청과 국립공원청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긴급 구호자금으로 4,31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힘
 -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장관은 허리케인 헬렌의 폭우, 강풍, 홍수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서 응급 차량과 공공 서비스 인력이 국립 산림과 국립 공원으로 들어가 중요한 수리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이번 긴급 구호자금은 통행 불가능한 4개 주의 주요 도로 교통망을 수리하고 가능한한 빨리 도로를 재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해당 자금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의 중요한 수리작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요청된 4,310만 달러의 긴급 구호자금 중 1,810만 달러는 미국 산림청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버지니아주의 국유림에 있는 도로 및 다리를 재개통하고 재건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나머지 2,500만 달러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블루리지 파크웨이 도로에 대한 긴급 수리에 사용될 예정임

- 이번 긴급 구호자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노스캐롤라이나주 피스가와 난탈랄라 국유림의 긴급 수리에 510만 달러 지원, ②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프랜시스 매리언 미 섬터 국유림에 대한 긴급 수리에 125만 달러 지원, ③ 테네시주 체로키 국유림의 긴급 수리에 525만 달러 지원, ④ 버지니아주 조지워싱턴 및 제퍼슨 국립 삼림의 긴급 수리에 640만 달러 지원, ⑤ 노스캐롤라이나주 블루리지 파크웨이의 긴급 수리에 2,500만 달러 지원 등임

□ **미국 총무청(GSA),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 위치한 테리 샌포드 연방건물 및 미국 법원에 지속가능한 투자 계약 체결 [11/12]**

- 미국 총무청(GSA)은 앨라배마주 애트모어에 있는 부족 소유의 소규모 기업인 PCI Support Services社와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 위치한 테리 샌포드 연방건물과 미국 법원의 건물 수리 및 개선을 위해 1,130만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한 투자 계약을 체결함
- 연방정부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연방 Buy-Clean 이니셔티브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기준이 낮은 저탄소 아스팔트, 콘크리트, 유리 및 강철의 구매를 우선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를 통해 미국의 산업적 역량을 확대하고, 기후 위기를 해결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번 프로젝트에는 건물 전체의 기존 창문을 저탄소 유리로 만들어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킨 창문과 문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테리 샌포드 연방건물 및 미국 법원 프로젝트는 GSA가 2023년 11월 이후 발표한 150개가 넘는 저탄소 관련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이번 프로젝트는 2026년 봄에 완료될 예정임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허리케인 헬렌 이후 노스캐롤라이나주 및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노숙자를 돕기 위해 약 480만 달러 지원 발표 [11/13]**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허리케인 헬렌의 피해복구 중인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의 노숙자를 지원하기 위해 약 480만 달러 지원을 발표함
- HUD는 Rapid Unsheltered Survivor Housing(RUSH) 프로그램을 통해 노스캐롤라이나주 위스턴-세일럼(54.8만 달러),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100만 달러),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빈 카운티(16.3만 달러),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렉싱턴 카운티(10.9만 달러), 사우스캐롤라이나주 (295.8만 달러) 등에 자금을 할당하여 기존 연방 재난 구호 프로그램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요구사항들을 해결하고 있음
- RUSH 자금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노숙을 경험했거나 노숙 위기에 처해 있던 사람들을 지원하여 재난 지역에서 노숙지원 및 노숙예방에 대해 즉각적으로 충족되지 않은 요구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또한, 해당 자금을 통해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24개월의 임대지원, 재정지원 및 비상 쉼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할 예정임

□ **미국 교통부(DOT), 미국 투자 아젠다의 일환인 클린 건설자재 사용 활성화를 위해 12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 발표 [11/14]**

-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고속도로국(FHWA)은 저탄소 교통 자재 재량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39개주의 교통부에 12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발표함

- 해당 보조금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2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아 아스팔트, 유리, 강철, 콘크리트를 포함한 미국산 저탄소 건축자재 및 제품을 교통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자금을 제공함
- 산업 탄소배출은 미국 기후오염의 30%를 차지하는 주요 원인으로 클린 건축자재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경제 개발과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부의 범정부적 접근방식임
-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장관은 이번 자금을 통해 수십 개의 주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클린 건축자재에 투자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미국 교통부(DOT)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Buy Clean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보호국(EPA)의 기관 간 파트너십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주 교통부들은 저탄소 교통자재 프로그램에 따라 연방지원 건설 프로젝트에 저탄소 건설자재를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있음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네바다주 리노에 위치한 저렴한 주택건설 및 보존을 위해 3,700만 달러 지원 발표 [11/14]**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저소득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저렴한 주택 옵션을 확대하기 위해 네바다주 리노 주택당국과 3,700만 달러 규모의 임대지원시범(RAD)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 이번 계약은 네바다주 리노에서 150개의 새로운 저렴한 임대주택 개발을 지원하고 해당 지역 내 기존 저렴한 공공주택의 보존 및 재건을 가능하게 하여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번 지원은 1963년에 지어진 Silverado Manor 건물을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에너지 효율적인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완공 후 해당 부지에는 피크닉 공간, 놀이터, 반려견 공원, 클럽하우스, 컴퓨터 랩, 운동실, 구내 관리, 공동 주방이 있는 커뮤니티 룸 등이 구비될 예정임
- 이번 프로젝트의 총 건설비용은 3,700만 달러로 주택당 20.7만 달러 규모의 투자이며, 상업용 1순위 모기지, 네바다 주택부의 자금, 4%의 저소득 주택 세액공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예정임

□ **미국 교통부(DOT), 초당적 인프라 법안 서명 3주년을 맞아 여객철도 확장, 도로안전 개선, 항구 개선 등 공급망 강화를 위해 34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 발표 [11/15]**

-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은 연방-주 파트너십 도시 간 여객철도 프로그램,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한 거리 및 도로 프로그램, 항만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 저탄소 교통 자재 재량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34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함
- 현재까지 초당적 인프라법을 통해 미국 전역에 66,0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약 5,700억 달러가 지원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국의 교량을 건설, 수리, 개선하기 위해 11,4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195개 이상의 부족 국가에서 630개 이상의 교통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 미국 교통부와 육군 공병대는 물품 이동 속도를 높이고 공급망의 신뢰성을 강화하여 일상용품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580개 이상의 항구 및 수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1,500개 이상의 공항 터미널을 현대화하고 활주로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음

- 추가적으로 약 320개의 철도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의 철도 네트워크를 현대화하고 미국 최고의 고속철도 시스템을 구축하며, 400개 이상의 고속도로-철도 교차로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들이 포함될 예정임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14억 달러 이상의 주택투자 발표 [11/19]**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녹색 탄력성 개선 프로그램(Green Resilient Retrofit Program, GRRP)의 최종 라운드를 발표하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14.3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발표함
-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역사상 가장 큰 기후 투자로 2022년에 GRRP를 제정하였으며, HUD의 프로젝트 기반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가정,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다세대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및 기후 회복력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HUD는 이번 보조금을 통해 에너지 및 수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 에너지를 통해 주택 운영 및 공공서비스 비용을 감축하며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을 촉진하여 주택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HUD는 이번 최종 라운드에서 3,700개 이상의 주택에 에너지 효율성을 지원하고 주민과 저렴한 주택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3개 주의 45개 부동산에 약 3,000만 달러를 지원함
- 이번에 지원하는 부동산에는 저소득 개인 및 가족을 위한 HUD 섹션8 프로젝트 기반의 임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34개의 부동산, 저소득 노인을 위한 HUD 섹션 202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8개 부동산, 장애인을 위한 HUD 섹션 811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3개의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음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위스콘신, 메릴랜드, 뉴햄프셔 주 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현대화에 650만 달러 지원 발표 [11/25]**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저렴한 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및 기후 회복력 개선을 위한 녹색 탄력성 개선 프로그램(Green Resilient Retrofit Program)을 통해 임대주택 현대화를 위한 자금 65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함
- 이번 자금은 위스콘신주 스토튼의 그린스파이어 아파트에 550만 달러,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팍스웰 메모리얼 아파트에 31.4만 달러, 뉴햄프셔주 콩코드의 콘레드&로얄 가든에 75만 달러가 지원될 예정임
- 이번 발표는 저소득층을 위한 HUD의 섹션8 프로젝트 기반의 임대지원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미국의 클린 에너지 전환의 이점이 모든 미국인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저렴한 주택의 개선방안임
- 에이드리언 토드먼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행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HUD 지원 주택을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발표로 스토튼, 볼티모어, 콩코드의 거주자들이 새로운 태양열 시스템 및 HVAC 교통 등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대한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언급함

- 미국 총무청(GSA), 미국 투자 아젠다의 일환으로 5개의 국가시설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절약 대책을 위해 1억 2,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 [11/26]
 - 미국 총무청(GSA)은 국립 수도권에 위치한 GSA 소유 시설 5곳의 에너지 절감 및 보존 조치를 위해 Constellation New Energy社와 에너지절감 성과 계약(ESPC)를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 이번 계약은 GSA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부동산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에너지 비용을 4억 5천만 달러 이상 절감하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임
 -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건물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워싱턴 D.C.에 있는 4개의 건물에 대해 100% 전기 에너지로 전환할 예정임
 - 로빈 카나한 미국 총무청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투자 아젠다인 에너지 비용 절감, 지역사회 일자리 증가, 모든 미국인의 건강한 미래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이번 계약에 따라 개선될 5개의 연방건물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Elijah Barrett Prettyman 미국 법원, William B. Bryant 별관, Orville Wright 연방건물 및 Wilbur Wright 연방 건물, 메릴랜드주 칼리지 파크에 있는 Harvey W. Wiley 연방 건물임
 - 이번 계약의 작업 범위는 건물에 따라 다르며, LED 조명 개조, 건물 외피 개선, 유틸리티 분배 개선, 물절약 조치, 난방 및 냉방시설 전기화 등이 포함됨
 - 이번 조치로 인해 연간 220만 달러의 유틸리티 비용이 절감되고 건물의 탄소배출량이 5,734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가솔린 자동차 1,300대의 탄소배출량과 동일한 수치임
 - 이번 에너지절약 조치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Wright 건물, Prettyman 미국 법원, William Bryant 별관의 조명과 건물 제어를 완전 전기화로 운영하는 것임. 이러한 전기화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해당 건물은 GSA의 화석 연료 시스템이 제거되고 더 효율적인 전기 에너지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